

## 『창세기 6회: 창세기 4:17-6:8, 라멕 이야기』

### 1. 가인의 가계(4:17-24)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성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표가 안전을 보증한다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sup>1)</sup>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기다립니다. 그 삶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한 인생의 요소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가인에게 안전을 보장했을 것입니다. 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괜한 노력을 경주할 때가 많습니다. 안식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지 않고, 말씀을 믿는 만큼 주어집니다.

성경은 4장 17-24절에서 가인의 족보를 제시하고, 5장에서 셋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가인과 셋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중입니다.

가인 종족 <sup>2)</sup>	셋 종족
아담	아담
가인	셋
에녹	에노스
이랏	게난
므후야엘	마할랄렐
므드사엘	야벳
라멕	에녹
야발/유발/두발가인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함/야벳

가인 계보에서 일곱 번째에 라멕이 위치하고, 셋 계보에서 일곱 번째에 에녹이 위치합니다. 두 족보는 라멕과 에녹을 강조하며, 이 두 사람의 이력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라멕은 가인 일족을 대표하는 매우 사악한 인물입니다.<sup>3)</sup> 반면 에녹은 셋 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죽지 않은 경건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60.

2)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1: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6), 권대영 역, 『창세기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343.

한 인물입니다. 가인 일족의 라멕은 셋 일족의 라멕과도 비교됩니다. 족보에서 말이 기록된 사람은 두 라멕뿐입니다. 가인 후손 라멕은 젊은 전사를 죽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셋 후손 라멕은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으며 그가 저주의 고통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줄 것을 소망합니다.<sup>4)</sup> 그는 미래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이를 성취하는 일에 노아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sup>5)</sup>

각각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믿고, 악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이깁니다. 주위 사람들의 죽음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집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두 라멕 중 한 사람을 더 닮아 있을 것인데, 누구를 더 많이 닮았습니까?

23-24절은 ‘칼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시에서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칠십칠 배(혹은 칠십 번씩 일곱 번)이리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시에서 숫자를 강조하는 기법은 연속된 행에서 X, X+1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7, 77을 사용해서 자신의 오만함을 표현합니다.<sup>6)</sup>

라멕처럼 인간은 자기에게 힘만 있다면, 피해를 입은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명령(동해보복법)하셨습니다.<sup>7)</sup> 대표적인 구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 21:24-25)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고,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 받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3)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44.

4)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245.

5)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89.

6) Gray Edward Schnitjjer, *The Torah Story*(Michigan: Zondervan, 2006), 박철현 역, 『토라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102.

7)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박영호 역, 『창세기 1-15』(서울: 솔로몬, 2006), 254.

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 해를 끼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라멕의 노래에는 그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라멕이 노래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범죄자가 범죄를 승배하는 장면입니다.<sup>8)</sup> 이제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sup>9)</sup> 라멕은 그가 가진 힘으로 거침없이 죄를 짓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후 가인의 후손에 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침묵은 가인의 계보가 사망과 심판으로 들어섰음을 암시합니다.<sup>10)</sup> 가인의 후손은 성읍을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점차 더욱 많이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25절에서 하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은 ‘씨’(히브리어 켄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후손’(씨)과 같은 단어입니다.<sup>11)</sup> 즉, 하와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26절에서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히브리어 에노쉬는 흔히 사람의 허약함이나 무가치함과 연결됩니다.<sup>12)</sup>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라멕과 달리 셋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셋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삶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그 삶이 야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삶에서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 오는 순간은 자신의 강함을 확인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8)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53.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63.

10)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54.

11)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23.

12)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54.

## 2. 아담의 가계(5:1-32)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물려받았습니다. 셋에게는 여전히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능력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sup>13)</sup> 또한 셋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인 죽음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죽습니다.

아담의 가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족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에녹은 죽지 않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은 단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sup>14)</sup>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도 있고, 단지 살아가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했음을 나타냅니다.<sup>15)</sup>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망에 매인 인간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6)</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충성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립니다.

## 3. 번식과 변절(6:1-8)

창세기 6장은 홍수 사건을 다룹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계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sup>17)18)</sup>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행한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들은 ‘보고’(라아), ‘좋으면’(토브), ‘가졌’(라카흐)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보고(라아), 먹음직해서(토브), 따서 먹었(라카흐)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 때는 심판당하고, 아담 때에는 에덴

13)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54.

14)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56.

15)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83.

16)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29.

17)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에 관해서 주로 세 가지 답변이 제시됩니다. 1) 타락한 천사들, 2) 셋 계보의 남자들, 3) 라멕의 폭군 왕조.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정체보다 이들의 악에 집중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고 그들 모두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실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8) Kenneth Mathews, 『창세기 1』, 403.

에서 쫓겨납니다.<sup>19)</sup>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으면, 가지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파트를 보고 좋으면, 가지려 합니다. 돈을 좋아 보이니, 가지려 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을 좋아 보이면, 만나려 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삶을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보고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왜 주지 않으세요? 너무해요!”라고 원망합니다. 내가 보고, 내 판단에 좋은 것을 얻는 삶은 심판당하는 삶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삶과 닮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취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물러나는 곳에는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해집니다. 그것이 곧 죽음의 현상, 생명이 사라진 현상입니다.<sup>20)</sup>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삶의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해집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고대의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전사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sup>21)</sup> 타락한 세상은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이 강한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국 셋의 후손 중에도 가인의 자손 라멕과 같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마저도 악한 라멕의 모습을 닮았다면, 이 세상에는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타협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으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내 스스로 남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 땅

1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91.

2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93.

21) Kenneth Mathews, 『창세기 1』, 414.

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려가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5절은 당대의 타락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모든 성향**”, “**온 종일 오직 악한**”. 인간은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명성을 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sup>22)</sup>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며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뜻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후회(나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sup>23)</sup>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한 번 정하면 결코 바꾸지 않는 분입니까?

치솜은 “하나님께서 ‘작정’의 영역에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섭리’의 영역에서는 뜻을 바꾸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 선언으로 듣는 인간들의 반응과 무관하지만, 섭리는 조건적 선언으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선포하신 후, 그 선포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뜻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sup>24)</sup>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듣는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 나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라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변해!”라는 창조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나함 동사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 없이 단지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함은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6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 ‘진노’의 감정보다 ‘고통’의 감정을 더욱 깊게 경험하셨습니다.<sup>25)</sup> 월터 브루그만은 노아 홍수 이야기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마음과 마음의 문제라고 올바르게 해석합니다.<sup>26)</sup> 인간의 마음이 늘 악

22) Kenneth Mathews, 『창세기 1』, 416.

23)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나함)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

24) Robert B. Chisholm Jr., “Does God Change His Mind,” *Bibliotheca Sacra* 152 (1995), 387-388.

25)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서울: 솔로몬, 2019), 84.

26) Walter Brueggemann, *Genesis* (John Knox, 1982), 77 히브리어 원문에서 ‘마음’이 한 번은 ‘인간 편의 마음의 악’을 가리킬 때, 한 번은 ‘하나님 편의 마음의 근심’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마음-마음의 부딪힘이 핵심입니다.

하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당했습니다.<sup>27)</sup>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때,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고 악을 선택할 때 깊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sup>28)</sup>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온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27)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84.

2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304.